

HEADLINE NEWS

연말을 맞아 시청사 로비에서 무료 송년음악회 개최 (시애틀)

미국 시애틀市는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 사이에 'Seattle Presents'라는 이름의 무료음악회를 시청사 로비에서 열고 있다. 12월에는 연말을 맞이하여 풍성한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기 음악회 외에도 4차례 특별음악회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2005년 12월 7일 점심시간에는 시애틀 청소년합창단과 시애틀 종합문화센터 직원합창단과 함께, 관심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노래 부르는 'All City Sing'이란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2004년 7월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Seattle Presents는 지금까지 대규모 오케스트라, 포크, 재즈, 클래식, 세계민속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공연하면서 시애틀 시민의 관심을 받아왔다.

(seattle.gov/news/detail.asp?ID=5642&Dept=1)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건물설계기법 도입 (버지니아州)

도시환경

- ② 도시개발과 수질오염 관계 규명 (미시간州)
- ③ 도시 영농 교육 프로그램 제공 (오하이오州 콜리블랜드市)

도시교통

- ④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용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미국)
- ⑤ 재택근무 증가추세 분석 연구보고서 발간 (미국)

사회복지·문화

- ⑥ 성적 소수자를 위한 자문위원회 위원 모집 (시애틀)
- ⑦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마련한 스파게티 식사 (시애틀)
- ⑧ 카트리나 피해지역의 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청소년 체력대회 개최 (시애틀)
- ⑨ 「선물로서의 책」 주제의 도서전시회 개최 (시애틀)
- ⑩ 가족사 연구에 관심 있는 시민을 위한 워크숍 개최 (시애틀)
- ⑪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이 협력해서 만든 서민주택 개관 (오스틴)
- ⑫ 오스틴 국제공항에 설치할 예술작품 공모 (오스틴)

도시 관리/도시 환경

■ 세계도시동향 ■

①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건물설계기법 도입 (버지니아주)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커먼웰스(Commonwealth) 대학은 대학 구내에 신축하는 경영대학 건물을 학생들이 많이 건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제외한 나머지 승강기는 모두 느리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결국 학생들이 복도나 계단을 많이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이러한 설계기법은 건물 내에서 빠른 이동성을 강조해왔던 기존의 설계기법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날로 증가하는 비만문제 해결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건물의 승강기는 3층 단위로 운행되어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기업, 학교, 각종 공공기관도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online.wsj.com/article_email/SB113210855510098537-1MyQjAxMDE1MzEyODExMDg4Wj.html)

② 도시개발과 수질오염 관계 규명 (미시간주)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이란 연구기관은 American Rivers와 공동으로,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식수 오염, 자연생태계와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하수도 범람 등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도로, 지붕, 주차장, 보도 등 불투수면 증가와 호수나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습지의 수질오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오염물질로, 빗물을 통해 습지로 흘러들어오는 기름성분, 가축분뇨, 농약과 비료, 제설용 모래와 염화칼슘 등을 들고 있다.

(www.macombdaily.com/stories/111505/loc_waterq001.shtml)

3 도시 영농 교육 프로그램 제공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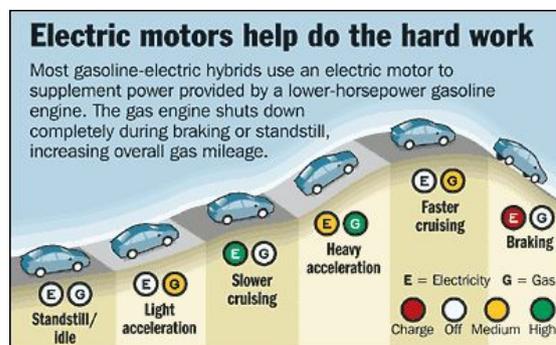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市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민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선한 도시(City Fresh)'라는 비영리단체가 후원한다. 교육내용은, 도시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 취득방법, 도시 영농방법, 마케팅 등을 포함하고 있다.



(neofoodshed.org/CITYFRESH/index.html)

4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용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미국)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낮고 연비가 높아 연료를 적게 사용한다. 따라서 미국의 많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정책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용시 연방정부 세금감면, 주정부 세금감면, 주차요금 인하, 카풀 전용차선 이용 등이 있다. 이미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는 나홀로 차량이더라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는 2006년 1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1대당 3,150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www.csmonitor.com/2005/1115/p01s03-usgn.html)

도시교통/사회복지·문화

■ 세계도시동향 ■

5 재택근무 증가추세 분석 연구보고서 발간 (미국)

미국의 Reason Foundation은 미국 대도시권의 재택근무 증가 추세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1990년과 200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택근무자가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권 50개를 분석한 결과 27개 대도시권에서 재택근무자 수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재택근무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와 부작용, 재택근무 활성화 정책 등이 언급되어 있다. (www.reason.org/ps338.pdf)

6 성적 소수자를 위한 자문위원회 위원 모집 (시애틀)

미국 시애틀시는 성적 소수자 위원회(Commission for Sexual Minorities)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성적 소수자 위원회는 시장과 시의회, 행정부서에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문제에 자문하고 관련 정책과 입법을 제시한다. 또한, 장기 사업을 통해 성적 소수자들과 시애틀 시민들이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市の 각 부서가 성적 소수자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성적 소수자 위원회는 커뮤니티 관계, 미디어와 마케팅, 채용·관리·정부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들은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정기 월례 회의 참석을 포함하여, 각 행정부서가 주재하는 회의, 입법 관련 로비, 위원 모집, 동성애자 관련 문제 해결 등 매월 최소 10~15시간은 의무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시장이 지명한 위원은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위촉되며, 선정된 위원은 무보수로 활동하게 된다.

(seattle.gov/news/detail.asp?ID=5622&Dept=40)

7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마련한 스파게티 식사 (시애틀)

미국 시애틀 비터 레이크(Bitter Lake) 주민자치센터는 친구와 이웃이 함께 스파게티를 마음껏 즐기는 파티를 열어, 파티 수익금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을 지원하는 행사를 했다. 2005년 11월 4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는 비터 레이크 커뮤니티 센터 청소년자문위원회 소속 청소년들이 마련한 것이다. 올해(2005년)로 세 번째 맞는 이 행사에서 스파게티 판매로 얻은 수익금은 주민자치센터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비터 레이크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자문위원회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seattle.gov/news/detail.asp?ID=5621&Dept=14)

8 카트리나 피해지역의 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청소년체력대회 개최 (시애틀)

미국 시애틀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청소년체력대회를 개최했다. 2005년 11월 12일 가필드(Garfield)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이 자선행사는 6세부터 19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다양한 체력단련 활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시애틀 경찰청 등 청소년체력대회를 후원하는 단체들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스 지역에 새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500달러씩 기부할 예정이다.

(seattle.gov/news/detail_print.asp?ID=5653&Dept=14)

9 「선물로서의 책」 주제의 도서 전시회 개최 (시애틀)

미국 시애틀 중앙도서관은 책이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시민들이 가지게 할 목적으로 도서전시회를 열었다. ‘선물로서의 책(Books for Giving)’이라는 주제로 2005년 11월 22일 시애틀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도서전시회에서는, 아동·청소년·성인에게 특별한 마음을 담은 선물이 될 수 있는 책을 고르는 요령을 사서가 직접 알려주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조경, 추리소설, 요리, 아동도서와 같은 전문분야 도서를 관련분야 전문 사서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도서전시회 참석자에게는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고, 10% 도서할인 쿠폰도 줬다.

(spl.org/default.asp?pageID=about_news_detail&cid=1129849927455)

10 가족사 연구에 관심 있는 시민을 위한 워크숍 개최 (시애틀)

미국 시애틀 중앙도서관은 시민에게 자신의 가족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워크숍을 열었다. ‘가족사 연구 시작하기(Beginning Your Family History Research)’라는 주제로 2005년 11월 16일 시애틀 중앙도서관 회의실에서 워크숍이 열렸고, 계보학(系譜學) 관련사서가 직접 시민에게 가족사 연구를 위한 정보를 안내했다. 워크숍은 가족으로부터 정보 수집하기, 정보 수집을 위한 인터넷 사용하기, 시애틀 지역에서 도서관이나 기록보관소 이용하기 등 유용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됐다.

(spl.org/default.asp?pageID=about_news_detail&cid=1129747501377)

④ 직업훈련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이 협력해서 만든 서민주택 개관 (오스틴)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함께 서민주택을 지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오스틴 해비타트(Austin Habitat for Humanity)가,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협력하여 2005년 11월 19일 또 하나의 새로운 서민주택을 개관했다. 'Youthbuild Austin'은 16세부터 24세까지의 미취업·저학력 청소년에게 기술습득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오스틴시의 청소년 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은 적법한 근로조건 하에서 시 임시직원으로 일하게 된다. 오스틴 해비타트는 2004년에 16채의 주택을 만들었지만, 2005년에는 Youthbuild Austin 청소년과 협력해 20채의 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ci.austin.tx.us/news/2005/habitat_youthbuild.htm)

④ 오스틴 국제공항에 설치할 예술작품 공모 (오스틴)

미국 오스틴시 '공공장소 예술 프로그램(Art in Public Places Program)'은 오스틴 국제공항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총 12만 달러이며, 관심 있는 텍사스 지역 예술가들은 2006년 1월 6일까지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스틴시는 건축비 예산의 2%를 공공장소를 위한 예술작품의 구매에 사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화 향수 증진을 위해 위탁, 기부, 대여할 목적으로, 오스틴 공공장소 예술 프로그램(AIPP)이 공원 등 공공시설에 설치할 예술작품의 구매를 담당하고 있다.

(ci.austin.tx.us/news/2005/abia_aipp.htm)